

2024

LEET 추리논증

신성우



LEET 시험에 대한 이해

- ❖ 140점 수준의 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언어이해 22/30, 추리논증 32/40 획득 필요
* $61.4 + 80.6 = 142$ 점
- ❖ 130점을 목표로 할 경우,
언어이해 20/30, 추리논증 29/40 정도가 요구
* $56.5 + 74.3 = 130.8$ 점
130점 이상부터 학점 및 정성이 뒷받침 될 경우
주요 로스쿨 도전이 가능
- ▶ 시험 출제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경우
"노력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30	80.9	100.0	40	97.5	100.0
29	78.4	100.0	39	95.4	100.0
28	76.0	100.0	38	93.3	
27	73.6		37	91.2	99.9
26	71.1	99.9	36	89.1	99.8
25	68.7		35	86.9	
24	66.3	99.4	34	84.8	99.1
23	63.8	98.6	33	82.7	98.3
22	61.4	97.1	32	80.6	96.9
21	59.0		31	78.5	
20	56.5	90.3	30	76.4	
19	54.1	84.3	29	74.3	88.7
18	51.7		28	72.2	
17	49.3		27	70.1	
16	46.8		26	68.0	73.3
15	44.4		25	65.9	66.6
14	42.0		24	63.8	
13	39.5		23	61.7	
12	37.1		22	59.6	
11	34.7		21	57.5	
10	32.2		20	55.4	

<원점수 - 표준점수 - 백분위 환산표>

추리논증 시험에 대한 이해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원리 적용	4	4		2	1	3
수리 추론	5	-		1	2	
논증 평가	2	1	3			2(실험)
논증 분석	1	9				
합계	12	14	3	3	3	3

- ❖ 40문제 120분으로 문항당 3분
- ❖ 소재별로 문제가 출제되며 ‘법학, 인문 철학, 가설-실험(과학 철학), 경제, 퀴즈, 과학 順
- ❖ 유형별로는 ‘원리 적용, 수리 추론, 논증 분석, 논증 평가, 퀴즈’가 반복
- ❖ ‘수리추론’, ‘논증분석(강화 약화)’, ‘퀴즈’, ‘과학’ 파트가 고득점을 위한 핵심 요인

강의 및 교재의 구성

- ❖ 기초 강좌의 목표 : 2024학년도 추리논증 40문제를 예제로 삼아 풀이방법 확립
 - ❖ 유형별 1. '기초 이론'을 학습한 후 2. '핵심 풀이 스킬' 확립
→ 문제를 통해 출제 장치를 분석하며 3. '유형별 출제 장치' 정리 (문제를 통한 학습)
 - ❖ 교재 <추리 논증 기초편>
 - ❖ 수업 수강 후 PSAT 언어 및 상황판단 문제로 구성된 <훈련서> 풀이
- * 이후 기본, 심화 강좌를 통해 논증 이론을 심화 학습하고 유형별 풀이방법을 정립하게 됩니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Part 1. 원리 적용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원리 적용(14)	4	4		2	1	3

❖ 원리 적용 문항은 LEET 전체 문항 중 1/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유형

❖ 기본 형태는 알려진 정보를 주고, 이 정보에 기반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라는 꼴 (추론)

* 알려진 정보 : 1.원리(Ⓐ 이면 Ⓑ 이다.)
+ 2. 추가 정보(현재 상황은 Ⓒ 이다.)

** 새로운 정보 : Ⓓ 이다.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글을 단순히 읽고 푸는 것이 아니다.

- '현재의 상황 정보를 찾아 원리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라.'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선지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다.

- '① 선지에 나온 최종 서술어가 도출될 수 있을 원리를 법률효과(후건)를 중심으로 찾고
② 그 서술어가 나올 수 있는 법률요건(전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라'

Part 1. 원리 적용 유형

[기초 논리학과 자주 나오는 표현 장치에 대한 이해 1]

❖ ‘A이면 B이다.’ : 조건문

- ‘A가 참이 되면, B도 반드시 참이 된다.’로 ‘A는 B를 함축한다.’를 의미
- 이때 A를 ‘충분조건’, B를 ‘필요조건’이라 표현
앞에 나온 조건이라 하여 A를 전건이라 하며 B는 뒤에 나온 조건이라 하여 후건이라 지칭

❖ ‘A이면 B이고, B이면 A이다.’ : 필요 충분

- 하나의 조건문과 그 역(*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의 위치가 바뀐 형태)이 동시에 성립하면 필요 충분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표현
- ‘A는 B를 의미한다.’, ‘A이면, 그리고 오직 그때만 B이다.’ 등으로 문제에서 표현

기억해야 할 표현 1. ‘A는 B를 의미한다.’ : ‘A와 B는 필요충분관계에 있다.’ / ‘정의문’

[기초 논리학과 자주 나오는 표현 장치에 대한 이해 2]

❖ ‘A이고 B이다.’ : 연언

- A와 B가 모두 참인 경우에만 ‘A이고 B이다.’는 참
- 이렇게 앞 뒤 술어가 모두 참인 것으로 연결되는 명제를 연언이라 함
문제에서는 ‘이고’, ‘이지만’, ‘임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

❖ ‘A이거나 B이다.’ : 선언

- A와 B 중 하나 이상이 참인 경우 ‘A이거나 B이다.’가 참
집합론에서 합집합인 경우와 동일

기억해야 할 표현 2. ‘전건이나 후건에 연언과 선언이 등장한 경우 실수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라는 것은 \neg 을 의미한다. \neg 했다면 A이다. 반면 B라는 것은 \neg 이다.

- ‘부분적으로’, 즉 a라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neg 이라면 전체적으로 A이다. \neg 이라면 전체적으로 B이다.

* ‘부분적으로 A이다.’는 \neg 인 경우에 해당.

‘이렇게’라는 표현을 생략한 글. 문맥적 장치를 통해 해석해야 할 필요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① 술어가 가지는 속성과 차원성을 구별하고 이를 찾으려 하라.’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㉔에서 이차적 선의 정의문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음.

‘세부 성질 자체가 아닌 성질이 속한 존재의 여러 요소가 어울려 가지는 좋음’정도로 이해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선지가 조건문으로 나온 경우, 선지 조건문을 전건과 후건 두 덩어리로 나눈 후

- ‘① 선지 전건을 지문에 대입했을 때 선지 후건이 나오는지 묻는 문제라 생각한 후
- ② 선지 후건이 나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라’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선지가 조건문으로 나온 경우.

-‘조건문을 대우(전건과 후건의 위치를 바꾼 후 각각 부정값을 취함)로 바꾸어 판단하려 하는 습관을 가져라’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선지가 조건문으로 나온 경우,

- ‘전건이 참이라 하더라도 후건이 참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판적 사고를 하라.
- ① 후건이 나올 수 있을까?와 ② 후건 외의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로 나뉜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지문을 아무 생각없이 조건문으로 기호화시켜 단순히 표현하지 말라.

- ‘문장의 정확한 의미, 특히 의미가 한정되는 등 요소가 기호로 바꾸면서 생략되고 한다. 기호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인 것만 인지하자.’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도덕적 판단은 배심원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침으로써 결정한다.

: 이 외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판단 결정 있음 → 배심원단이 존재함’의 조건문을 함축

❖ 역겨움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X의 배심원으로 선정된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조건문으로 변화시키려 하면 안된다.

1. 역겨움을 느끼면 항상 X의 배심원이 되는 것인가? (△)
2. 아니라면 X의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겨움을 느끼는 성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
: ‘X의 배심원 → 역겨움을 느끼는 성향’

* 함축 관계에 대한 추가적 이해

‘도덕적 금기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 결정’이 필요조건.

‘도덕적 금기가 위반’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금기’가 무엇인지 결정될 필요

❖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배심원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침으로써 결정한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가 예시로 패러프레이징 된 경우, 원리와의 비교를 통해 그 내용을 이해하자.’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사전에 알고 있는 기초 논리이론이 적용될 경우 문제 풀이에 적극 활용하자.’

[기초 논리학과 자주 나오는 표현 장치에 대한 이해 3]

❖ 조건문 ‘A이고 B이다.’의 참 거짓 판단

*참 거짓 판단과 도출과 절대 혼동하지 말 것

- 현대 논리학의 일반적 견해: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만 거짓.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참

- 기타 견해 1. A가 참이고 B가 참인 경우 참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 거짓

A가 거짓인 경우 판단 불가

- 기타 견해 2. A가 참이고 B가 참인 경우 참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 거짓

A가 거짓인 경우 그 경우의 가장 현실가능성 있는 경우가 참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목적을 욕구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수적인 수단을 욕구하는 것이다.

1. 목적을 욕구하지 않음 → 만족

2. 필수적인 수단을 욕구 → 만족

* 전건이 선언으로 구성된 조건문의 변환 표현

$(A \text{ or } B) \rightarrow C$

$= (A \rightarrow C) \& (B \rightarrow C)$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선지에 나온 술어를 통해 필요한 원리를 찾아라’
-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경제, 수리퀴즈 문제는 초기 제약값에 주의하라.’
-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대입하여 확인하라. 특히 극단값을 대입하라.’

30.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경제학에서는 경제주체의 효용이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남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누리기를 내가 바라는 경우, 나의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나의 효용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득 배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사람 갑과 을로 구성된 가상의 사회를 생각해 보자. 둘이 나눠 가지는 소득의 총량은 100으로 고정되어 있다. 각각의 소득은 정수이며 둘은 100을 남김없이 나눠 가진다고 하자. 이때 두 사람의 효용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갑, 을 모두 동일한 임계점 y_c 가 있어(단 $y_c \geq 50$), 자신의 소득이 y_c 이하일 때는 소득이 그대로 효용이 되지만, 소득이 그보다 클 때는 소득이 y_c 를 초과한 값을 y_c 에서 뺀 값이 효용이 된다. 예를 들어 y_c 가 70일 때, 만약 소득이 60이라면 효용은 60이지만, 소득이 90이라면 효용은 50이다. 사회에서 하나의 배분을 두 소득의 조합 (y_1, y_2) 로 표시하자. 여기서 y_1 과 y_2 는 각각 갑과 을의 소득을 나타낸다.

위 상황에서 특정 배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효율성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의 배분 $y=(y_1, y_2)$ 에 대해 또 다른 배분 $y'=(y_1', y_2')$ 이 존재하여 y 보다 y' 에서 갑과 을 각각의 효용이 모두 더 높다면, y 를 '비효율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이러한 y'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y 를 '효율적 배분'이라고 정의한다.

<보기>

- ㄱ. $y_c=100$ 이면, 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 ㄴ. $y_c=80$ 일 때 배분 (10, 90)은 효율적이다.
- ㄷ. y_c 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배분의 개수는 줄어든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상식을 활용하라.'

3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X국 정부는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암 치료제를 개발한 제약회사에 특허를 주어 20년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특허를 얻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암 치료제는 암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설계된다. 어떤 약은 초기암에 더 효과적이고 어떤 약은 말기암에 더 효과적이다. 이른 시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암이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관점에서는 초기암 치료제의 가치가 말기암 치료제보다 더 높다. 그런데 X국에서 특허를 얻은 암 치료제의 종류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개발되어 출시되는 암 치료제는 초기암 치료제보다 말기암 치료제가 월등히 많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가, ㉠초기암 치료제의 임상시험에 소요 되는 시간과 ㉡말기암 치료제의 임상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가 ㉢X국에서 암 치료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한 규정과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상황에서는 초기암 치료제보다 말기암 치료제를 개발하여 출시하는 것이 더 높은 이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 ① ㉠이 ㉡보다 길고, ㉢은 특허를 얻은 시점이다.
- ② ㉠이 ㉡보다 길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
- ③ ㉡이 ㉠보다 길고, ㉢은 특허를 얻은 시점이다.
- ④ ㉡이 ㉠보다 길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
- ⑤ ㉠과 ㉡이 같고, ㉢은 임상시험 통과 시점이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적용 형태의 퀴즈는

‘도표를 적절하게 그리되, 그 도표화의 원리는 집합과 원소를 고려하라.’

‘귀류법, 즉 ‘보기의 내용이 거짓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라.’

‘가능세계, 즉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라.’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따지는 경우의 수 풀이는 지양해야 한다.’

‘원리와 주어진 초기 정보를 결합하여 얻을 수 있는 확정값을 찾아내어야 한다.’

34.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 D, E, F, G 종류의 LED 전구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전광판을 만들었다.

A|B|C|E A|C|D|F B|D|E|G C|E|F|G

이 LED 전구들은 다음 규칙에 따라 켜지거나 꺼진다.

- 각 전광판에 켜진 LED 전구의 개수는 0 또는 2 또는 4 이다.
- 같은 종류의 LED 전구는 한꺼번에 켜지거나 한꺼번에 꺼진다.
- A, B, C 중에서 켜져 있는 종류는 하나이다.

— < 보 기 > —

- ㄱ. A 종류의 LED 전구는 켜져 있다.
- ㄴ. 켜져 있는 LED 전구의 종류가 3가지이면 D 종류의 LED 전구는 켜져 있다.
- ㄷ. F 종류의 LED 전구가 켜져 있으면 G 종류의 LED 전구도 켜져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도표화, 가능세계

	1	2	3	4
A	0	0		
B	0		0	
C	0	0		0
D		0	0	
E	0		0	0
F		0		0
G			0	0

확정 값 : A~C중 하나만 켜져야 하기에 1이 2개가 켜져야 하기에 E도 켜짐

34.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 D, E, F, G 종류의 LED 전구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전광판을 만들었다.

[A|B|C|E] [A|C|D|F] [B|D|E|G] [C|E|F|G]

이 LED 전구들은 다음 규칙에 따라 켜지거나 꺼진다.

- 각 전광판에 켜진 LED 전구의 개수는 0 또는 2 또는 4 이다.
- 같은 종류의 LED 전구는 한꺼번에 켜지거나 한꺼번에 꺼진다.
- A, B, C 중에서 켜져 있는 종류는 하나이다.

— < 보 기 > —

- ㄱ. A 종류의 LED 전구는 켜져 있다.
- ㄴ. 켜져 있는 LED 전구의 종류가 3가지이면 D 종류의 LED 전구는 켜져 있다.
- ㄷ. F 종류의 LED 전구가 켜져 있으면 G 종류의 LED 전구도 켜져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	2	3	4
A	O	O		
B	O		O	
C	O	O		O
D		O	O	
E	O		O	O
F		O		O
G			O	O

- ㄱ. A가 꺼진 상황
 - B가 켜진 경우 4가 문제, C가 켜질 수 없어 총족 불가
 - C가 켜질 경우 2와 3이 문제, D를 더 켜는 것으로 해결 : 꺼져도 무관
- ㄴ. D종류의 LED가 꺼졌을 때 3가지만 켜질 수 있는지.
 - A가 켜진 경우 2,3,4가 문제 / F,G로 해결 불가
 - B가 켜진 경우 4가 문제 / F,G로 해결 불가
 - C가 켜진 경우 2,3이 문제 / F, G로 해결 불가
- ㄷ. F가 켜져 있고 G는 꺼져있다고 가정
 - A가 켜질 경우 3이 문제. D로 해결 불가
 - B가 켜질 경우 2가 문제. D로 해결 불가
 - C가 켜질 경우 3이 문제. D로 해결 불가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인문 철학적 전형적 원리적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건문 형태로 나와있지 않은 원리를 반영하여 결과값을 대입하라.

이 경우, 도출되는 후건 술어값이 명시적으로 지문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복잡한 과학문제의 경우

‘글을 다 읽고 이해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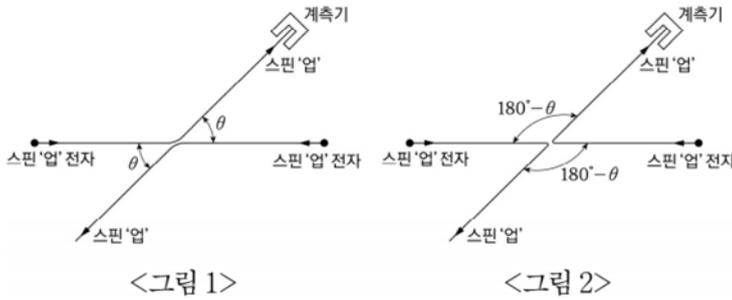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원리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다.’

39.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양자 역학에서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를 '상태함수'라고 한다. 구별불가능한 두 전자 전체에 대한 상태함수는 두 전자를 맞추는 연산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번 전자가 a 상태에 있고 2번 전자가 b 상태에 있을 상태함수 $1/J(l=a, 2=b)$ 와, 두 전자의 상태를 바꾼 상태함수에 -1 을 곱한 것을 합한 것, 즉 $1/J(l=a, 2=b) - 1/J(l=b, 2=a)$ 가 구별불가능한 두 전자 전체에 대한 상태함수이다. 그런데 전자는 운동량이나 위치와 같은 상태뿐만 아니라, '업'과 '다운' 중 하나의 스핀 상태를 갖는다. 스핀값이 다른 두 전자는 구별가능하지만, 스핀값이 같은 두 전자는 구별불가능하다. 구별가능한 두 전자의 경우, 그 상태함수는 $1/J(l=a, 2=b)$ 또는 $1/J(l=b, 2=a)$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두 전자를 맞추는 연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모두 스핀 '업'인 두 전자가 서로를 향해 진행하여 산란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그림1>과 같이 두 전자가 모두 처음 진행 방향과 θ 의 산란각으로 산란하면 두 전자의 상태함수는 $f(\theta)$ 이다. <그림2>와 같이 산란 후 두 전자를 맞추는 연산을 하면, 두 전자는 모두 처음 진행 방향과 $180^\circ - \theta$ 의 산란각으로 산란하며 두 전자의 상태함수는 $f(180^\circ - \theta)$ 이다. 따라서 두 전자 전체에 대한 상태함수는 $f(\theta) - f(180^\circ - \theta)$ 가 되고, 이때 스핀 '업' 전자를 각도 θ 에서 발견할 확률은 $|f(\theta) - f(180^\circ - \theta)|^2$ 이다. 이는 계측기에 도착하는 전자가 왼쪽에서 왔는지 오른쪽에서 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산란 전 오른쪽에서 오는 전자만을 스핀 '다운' 전자로 바꾸어 산란시키면 스핀 '업' 전자를 각도 θ 에서 발견할 확률은 $|f(\theta)|^2$ 이 된다. 이는 두 전자가 구별가능하여 스핀 '업' 전자가 왼쪽에서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

- ㄱ. 스핀값이 다른 두 전자를 맞추면, 두 전자의 상태함수는 달라진다.
- ㄴ. 스핀 '다운'인 두 전자를 이용하여 산란 실험을 하면 각도 θ 에서 스핀 '다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f(\theta) - f(180^\circ - \theta)|^2$ 이다.
- ㄷ. 스핀값이 같은 두 전자를 맞추는 연산을 하였을 때, 바꾸기 전의 상태함수 $1/J(l=a, 2=b)$ 가 바꾼 후의 상태함수 $1/J(l=b, 2=a)$ 와 같으면 두 전자 전체에 대한 상태함수는 0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과학문제의 경우

‘몇몇 빈출 과학용어와 내용들은 익혀 두라. Ex) 입자, 파동, 회절, 산란
기출 수준의 내용만 익혀두고 그 외 내용은 버리라.’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법조문 문제의 경우

‘법조문, 혹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이 하나의 원리가 된다.
법률요건은 전건이 되며 법률효과는 후건이 된다.’

‘후건 법률효과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
혹은 기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이때 의무는 기속규정이 되며 권리는 재량규정이 된다.’

‘기존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는 의무도 권리도 없었다는것을 인지하고 풀어야 한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특별한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A인 경우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A가 아닌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어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구성

Part 1. 원리 적용 유형

❖ 원리 적용 유형의 핵심 SKILL 1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법조문 문제의 경우

‘날짜가 나온 경우 시간 변화에 따른 법조문의 효력 유무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Part 1. 원리 적용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제 1조 : 나중에 소송 제기시 개시할 수 없다.

제 2조 : 전속합의시 개시할 수 없다.

제 3조 : 관계 없을 시 전속은 무효다. 소송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제 4조 : 제 3조는 ~부터 시작한다.

12. [규칙]을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과거 P집안은 같은 성(姓)을 사용하되 그 집안 소속 남성들의 이름을[규칙]에 따라 지었다.

[규칙]

1. 같은 항렬에 있는 세대는 오행(五行), 즉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중 하나를 부수(部首)로 하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다. 그 한자를 '돌림자'라고 한다. 돌림자의 부수는 목, 화, 토, 금, 수를 순서대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2. 이름을 두 글자로 짓는 경우 돌림자는 이름의 첫째 글자로든 둘째 글자로든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세대이면 한쪽으로 일치 시킨다. 그리고 돌림자 아닌 글자로든 형제간이라면 같은 부수가 왼쪽에 붙은 한자를 사용한다. 그 부수를 '돌림변'이라고 하는데, 사촌간이라면 다른 돌림변을 사용한다.
3. 이름을 한 글자로 짓는 경우 같은 항렬에 있는 세대는 돌림자 대신에 돌림변을 사용한다. 그 세대에서 이름을 두 글자로 지었더라면 사용하였을 돌림자의 부수는 바로 다음 세대에서 사용 한다.

<사례>

갑, 을, 병, 정, 무는 P집안 소속의 남성이다. 갑의 이름은 '일곤(一坤)'이다. 을과 병은 갑의 아들이다.

(상황 1) 정과 무는 을의 아들이다.

(상황 2) 정은 을의 아들이고 무는 병의 아들이다.

— <보기> —

- ㄱ. 을과 병의 이름은 '인(仁)'과 '신(信)'일 수 없다.
- ㄴ. (상황 1)이면 정과 무의 이름은 '종인(鍾仁)'과 '종근(鍾根)'일 수 없다.
- ㄷ. (상황 2)이면 정과 무의 이름은 '근(根)'과 '식(植)'일 수 없다.

- ① ㄴ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규칙의 사례 적용]

(초기 상황) 갑의 이름은 일곤, 을 병은 갑의 아들
 갑: 일곤
 을: 병

[보기 판단: 비판적 사고, 즉 귀류]

보기 ㄱ.

“‘인’, ‘신’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 규칙으로 이동.

규칙 1: 일곤은 ‘토’가 부수, 일곤의 자식은 ‘금’이 부수여야 함

규칙 3: 이름 한 글자이기에 돌림변을 사용. 돌림변은 규칙 2에서 확인. 같은 부수가 왼쪽

→ 을과 병 이름이 한 글자이면 돌림변을 사용하고 같은 부수가 왼쪽에 있지만 하면 됨. 가능

보기 ㄴ.

이름을 두글자로 지었기에 규칙 2에 해당. 돌림자 아닌 글자는 같은 부수가 왼쪽. ‘종’이 금을 부수로 하는 한자이나 인과 식은 같은 부수를 사용하지 않기에 정과 무의 이름이 그럴 수 없음.

보기 ㄷ.

돌림변을 사용. 규칙 2에서 사촌은 다른 돌림변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이름 두 글자로 짓는 경우. 이름 한 글자이기에 같은 세대가 돌림변이 같아야 함.

Part. 2

수리 추론 유형

Part 2. 수리 추론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수리 추론	4	-		1	2	

❖ 수리 추론 유형은 LEET 전체 문항 중 1/5 정도를 차지

❖ 기본 형태는 법조문 문제에서 원리를 주고 숫자값을 도출하라는 꼴로
이때 원리는 조건문이나 법률요건-법률효과 형태의 법조문으로 나오기보다
수치 계산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

❖ 고득점과 낮은 점수를 가르는 핵심 유형 중 하나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수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 '보기에 제시된 수치 값과 지문에서 계산되는 수치 값을 비교하는 것이다.'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가중평균은 계산식을 보고 푸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가중평균은 두 값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구하는 문제이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입을 해서 그 비율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라.

* 70과 90이 82일 때 6:4의 비율로 나뉘어 지는지를 확인

7. [규정]의 적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제1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도로구역을 관리한다.

② ‘도로’란 차도, 보도를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다.

③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제2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해당 도로구역을 지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의 지정 또는 폐지의 효력은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도로(도로구역 포함)로 지정된 국유지 또는 사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월 일정한 토지점용료(이하 ‘월 토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이하 ‘무단점용’)한 경우 무단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한 토지에 부과되어야 하는 월 토지점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한 경우 초과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초과점용한 토지에 부과되어야 하는 월 토지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초과점용이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은 초과점용 부분에 대한 토지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보 기>

ㄱ. 도로의 초과점용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고의·과실 없이 초과점용한 것으로 밝혀져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을 이유로 부과할 토지점용료 상당액은 5,000만 원이다.

ㄴ. 신도로 완공 후, 구도로 노선의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에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농지를 조성한 경우가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구도로 노선의 도로구역 폐지의 고시가 있었을 것이다.

ㄷ. 도로인 X국유지(월 토지점용료 1,200만 원)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1개월간 점용한 경우 부과처분될 변상금액은, X국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인근의 도로구역인 사유지(월 토지점용료 1,500만 원)를 고의로 1개월간 초과점용한 경우 부과처분될 변상금액과 같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2. 수리 추론 유형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3-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도표화를 연습하자. 도표화는 X축과 Y축의 분류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최대값을 가정하자.’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나누기는 ‘/10’꼴로 바꾸어 곱하기로 변경하자.’

8. [선발 규칙]과 [조정 규칙]의 적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사는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선발 규칙]의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적용하여 1,600명을 우선 선발하였고, [조정 규칙]을 적용하여 추가 선발하였다.

[선발 규칙]

- 1안: 공대 출신과 비공대 출신을 3:1로 선발한다.
- 2안: 공대 출신과 비공대 출신을 3:2로 선발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도 3:2로 선발한다. 이때 비공대 출신 경력자와 비공대 출신 비경력자는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 3안: 공대 출신 경력자, 공대 출신 비경력자, 비공대 출신 경력자, 비공대 출신 비경력자를 1:1:1:1로 선발한다.

[조정 규칙]

- 1안: 비공대 출신 선발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공대 출신을 추가로 선발한다. 추가 선발자 중 경력자와 비경력자는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 2안: 선발된 경력자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자를 추가로 선발한다. 추가 선발자 중 공대 출신과 비공대 출신은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 < 보 기 > —

- ㄱ. [선발규칙] 1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규칙] 1안에 따라 조정하였다면, 최종 선발자 중 경력자의 수는 1,650명을 넘을 수 없다.
- ㄴ. [선발 규칙] 2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 규칙] 2안에 따라 조정하였다면, 최종 선발자 중 공대 출신의 수는 비공대 출신의 수의 1.5배를 초과한다.
- ㄷ. [선발 규칙] 3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 규칙] 1안에 따라 조정 하고 그 결과를 [조정 규칙] 2안에 따라 조정하였든, [선발 규칙] 3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 규칙] 2안에 따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조정 규칙] 1안에 따라 조정하였든, 최종 선발된 공대 출신 비경력자의 수는 같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규칙의 적용]

(초기 상황) 선발 규칙 1 ~ 3 중 하나를 정해 1,600명 선발

보기 ㄱ.
최종 선발자 중 경력자를 최대로 하는 경우 판단
선발 규칙 1안: 1,600명 모두 경력자
공대 1,200 / 비공대 400
조정 규칙 1안 : 100명의 비공대 추가 선발, 경력자 50
경력자 최대는 1,650

보기 ㄴ.
선발 규칙 2안에 대한 결과
공대 비공대 3:2 / 경력 비경력 3:2
[Tip] 1600을 5로 나눈다? $1600 * (2/10)$, 160에 2를 곱한다.

	공대	비공대	
경력	640	320	960
비경력	320	320	640
	960	640	

조정 규칙 2
경력자 480명 추가 선발, 공대 240, 비공대 240
 $1,200 + 860 / 1.5$ 배 초과 x
(비공대 860의 1.5배를 기준으로 이를 넘는지 판단)

보기 ㄷ.
핵심 : 최종 선발된 공대 출신 비경력자의 수

선발 규칙 3
이후 조정 규칙 1 : 공대 선발 x
→ 조정 규칙 2 : 비경력자 선발 x

선발 규칙 3
이후 조정 규칙 2 : 비경력자 선발 x
→ 이후 조정 규칙 1 : 공대 선발 x

Part 2. 수리 추론 유형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제약 조건을 항상 염두하자.’

Part 2. 수리 추론 유형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가능한 최대 최소 범위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치를 통한 확인이다.’

32.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공리 P는 선택 가능한 대안의 집합이 축소되는 경우 개인의 선택에 대해 적용되는 공리이다. 선택 가능한 대안 전체의 집합 T에서 x가 선택되었다고 하자. 또한 T의 한 부분집합 S에 대해 x가 여전히 S에 속한다고 하자. 그러면 P는 축소된 집합 S에서도 여전히 x가 선택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P를 위배하는 선택은 직관적으로 매우 이상하게 느껴진다. 가령 짜장면을 주문하려는 사람에게 종업원이 "참, 오늘 볶음밥은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 사람이 주문을 짬뽕으로 바꾸었다고 하자. 이러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는 이러한 상식을 정식화한 것이다.

〈사례1〉

한 선거에서 갑과 을만 입후보한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갑이 우세 했으나, 제3의 후보인 병이 등장하자 을이 선두를 차지했다.

〈사례2〉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뽑는 선거에 세 후보 A, B, C가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A가 1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 획득에 실패하여, 2위를 차지한 B와 함께 결선투표에 진출하였다. 동일한 투표자가 참여한 결선투표에서 B가 과반을 얻어 당선되었다.

〈사례3〉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유희지 사용을 위한 안으로 X, Y, Z를 선정하여 전체 주민 100명의 의견을 물었다. 1차 조사에서는 X, Y, Z를 선택한 사람이 각 17명, 0명, 83명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X와 Z만 제시하였는데, X와 Z를 선택한 사람은 각각 68명과 32명으로 집계되었다.

- ① 〈사례1〉에는 P를 위배한 사람이 존재한다.
- ② 〈사례2〉의 1차 투표에서 C를 선택한 사람 중 적어도 1명은 P를 위배하였다.
- ③ 〈사례2〉의 1차 투표에서 B를 선택한 사람보다 A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이 P를 위배하였다.
- ④ 〈사례3〉에서 P를 위배한 사람은 전체 주민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 ⑤ 〈사례3〉에서 P를 위배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15%일 수 있다.

Part 2. 수리 추론 유형

❖ 수리 추론 유형의 핵심 SKILL 1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도표화, 귀류, 홀수와 짝수에 대한 수의 원리 등이 수리 추론형 퀴즈에서 활용된다.’

35.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자가 2021년과 2022년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단, 모든 학생은 A형, B형, AB형, O형 중 하나의 혈액형을 가진다.)

-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비는 2:3에서 1:2로 변했다.
- 여학생 수는 변화가 없었다.
- AB형 학생 수는 변화가 없었다.
- B형 여학생 수는 감소하였고 O형 남학생 수는 변화가 없었다.
- 남학생 수에 대한 AB형 남학생 수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 B형 학생 수에 대한 B형 남학생 수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다.

- ① 남학생 수가 증가하고 여학생 수도 증가한 혈액형은 1개이다.
- ② A형 여학생 수가 감소하였다면 O형 여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 ③ 남학생 수가 감소한 혈액형의 여학생 수는 감소하였다.
- ④ 여학생 수가 증가한 혈액형은 AB형이 아니다.
- ⑤ B형 남학생 수는 감소하였다.

[도표화]

		〈2021〉				
		A	B	AB	O	
남 녀	남			K		3
	녀					2
				-		

		〈2022〉				
		A	B	AB	O	
남 녀	남	▲	▼	4/3k	-	4
	녀		▼	▼		2
				-		

Part. 3

논증 평가 유형

Part 3. 논증 평가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논증 평가 (8)	2	1	3			2(실험)

- ❖ 논증 평가 유형은 LEET 전체 문항 중 1/5 정도를 차지
- ❖ 강화와 약화를 묻는 문제가 기본형이며
과거 ‘설득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기출에서는 나오지 않는 추세
- ❖ 큰 어려움 없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형.
내용에 대한 강화와 약화, 논증에 대한 강화와 약화, 실험에 대한 강화와 약화로 구분.
논증과 실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이 난도가 많이 쉬워짐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부합 사례는 강화이며, 반례는 약화다.’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약화는 부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한다. 부정문을 만들어 비교하라.’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강화는 부합 내용이 지문에 있어야 한다. 술어를 찾고 패러프레이징과 함축을 의식하라.’

Part 3. 논증 평가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했음에도 그 전액을 보상’
이 내용의 부정문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인지 비교
- ❖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없으나, 영업비밀을 넘긴 이득을 손해로 보아 회사에 배상’
‘불법행위 손해 회복과 더불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비교
- ❖ ‘피해자가 용서한 사안에서 사회적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
이 부정이 있는지 찾고,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복하는 것’과 비교
부합내용을 비교,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 지침 제공’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 적용형과 강화 약화형이 결합된 경우, 단어 하나 하나 끊어서 따져가며 판단하라.’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정확한 부합 및 반례가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버려라.’

6.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거실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타인의 주거 내부를 외부에서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규정]

제1조(비밀탐지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내부를 녹음 또는 청취 등의 방식으로 탐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불법수색죄)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을 권한 없이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견해>

A: ㉠은 비밀탐지죄에 해당한다. ‘탐지’는 주거 내부의 정보를 알아내어 거주자가 누리는 사생활의 안전감을 침해하는 것이고, ‘녹음 또는 청취 등의 방식’은 반드시 음향적 또는 청각적 방식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녹화 또는 조망의 방식을 포함한다.

B: ㉠은 불법수색죄에 해당한다. ‘수색’은 사람이나 물건을 발견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이다. 기존에 불법수색 죄는 주거나 건조물에 적법하게 들어간 사람이 권한 없이 수색 하는 경우를 처벌해왔지만, 불법수색죄의 문언 자체는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불법 수색죄는 위법하게 주거나 건조물에 들어가 권한 없이 수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고 주거나 건조물 밖에서 그 내부를 권한 없이 수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보 기>

ㄱ.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육안으로 타인의 주거를 들여다보는 것 만으로는 비밀탐지죄의 ‘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된다.

ㄴ. 타인의 주거에 위법하게 들어가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적법하게 들어가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보다 더 위법하다는 것이 [규정] 제1조와 제2조의 형량을 다르게 정한 입법 취지라면, B는 강화된다.

ㄷ. 경찰이 수배자 갑을 찾기 위해 드론으로 영장 없이 을의 주거를 외부에서 촬영한 행위가 사생활의 안전감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위법한 ‘수색’에는 해당한다고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되고 B는 강화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Part 3. 논증 평가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지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
정확한 비교가 필수
- ❖ 지문에서 제시된 사례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지문 사례와 보기 사례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 판단 결과가 기존 지문 판단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반례인지를 확인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에 대한 강화 약화인 경우 밀줄 내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

14. ㉠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진실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누리소통망 글이 사실과 다름에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현상이 한 가지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그러한 경우 화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A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나 화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상적인 관찰 조건에서 갑이 높은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 빌딩 옆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듯 보였다고 하자. 그래서 갑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은 광장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행사를 위해 설치한 사람 모양의 인형들이었다. 갑에게 자신의 관찰은 분명한 것으로 느껴졌기에, 갑은 1층으로 내려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갑 스스로 증거가 미심쩍다고 여겼거나 타인으로부터 확인을 요구받았더라면 갑은 확인했을 것이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만큼 자신의 경험을 확신했던 것이다.

A에 따르면 이 경우 갑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갑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렵다. A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오직 그 경우에만 그 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A에 따르면 위 예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갑의 주장 행위는 그 자체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갑의 주장 행위는 인지적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에게는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 A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주장하는 행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위의 예와 같은 허용 가능한 수준의 태만이나 인지적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의 습득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적극적인 회피 태도라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를 지닌 주체에게 책임이 귀속됨은 물론이다. 아주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확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가짜 뉴스를 신봉하여 전파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자명하다.

- ①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어떤 것도 인지적 착각이 아니라면, ㉠은 약화된다.
- ② 가짜 뉴스를 신봉하여 전파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책임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면, ㉠은 약화된다.
- ③ 그 자체로 비난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행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은 약화된다.
- ④ 정상적인 관찰 조건에서의 거짓 주장은 언제나 적극적인 회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은 강화된다.
- ⑤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인지적 착각에 불과한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면, ㉠은 강화된다.

Part 3. 논증 평가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조건문의 부정이 약화 문제 풀이의 기본.

❖ 논증을 다 이해하고 풀 필요는 없음.

❖ 장치 ‘A이다. B때문이다.’

전제 : B

결론 : A

숨은전제 : $B \rightarrow A$

이는 A이면서 B인 대상이 존재함을 함축.

❖ 장치 ‘A는 어떤 것도 B가 아니다.’ = A는 모두 B가 아니다.

$A \rightarrow \sim B$

우리반 학생은 누구도 남자가 아니다.

우리반 학생 $\rightarrow \sim$ 남자

❖ A일 때 오직 그 경우에만 B이다. (표현의 변주에 주의할 것)

$B \rightarrow A$

❖ A는 언제나 B이다.

$A \rightarrow B$

❖ A가 언제나 B인 것은 아니다.

(A & $\sim B$)가 존재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가설의 약화는 그 반례를 찾는 것이다. 강화는 부합 사례를 찾는 것이다.
가설에 대한 부정문과 부합 사례를 만드는 것에서 문제 풀이가 시작된다.’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실험은 집단마다 상이한 독립변수(원인) 처리 후 종속변수(결과) 차이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Part 3. 논증 평가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
 - 그 모호한 판단이 정답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보기를 구성하지 않음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실험의 강화는 일치법과 차이법으로 설명된다.
실험의 약화는 반례다.’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대립 가설을 활용한 문제는 리트에서도 보편적이지는 않다.’

27.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배심원들이 확률적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 주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를 설명하는 <가설>이 있다.

<가설>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증거는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지더라도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배심원의 판결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

즉 "피고에 책임이 있을 확률이 80%이다."라는 증언과 "맞을 확률이 80%인 증거에 근거할 때 피고에 책임이 있다."라는 증언은 배심원들이 받아들이는 데에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모의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 개요를 읽게 한다.

"갑은 같이 산책 중이던 자신의 개를 친 혐의로 버스 회사 B를 고소했다. 갑이 사는 도시에는 파란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B와 회색 버스만 운행하는 회사 G, 2개만 있는데, 갑은 색맹이어서 사고를 낸 버스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모의 배심원을 무작위로 둘로 나눈 뒤, 집단1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만을, 집단2에게는 조사관의 증언 X와 Y 모두를 제시한다.

X: 타이어 매칭 기술을 적용한 결과 B의 전체 버스 10대 중 8대와 G의 전체 버스 10대 중 2대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타이어 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Y: 나는 타이어 자국 증거에 근거해서 B의 버스가 원고의 개를 쳤다고 본다.

모의 배심원들로 하여금 B의 버스가 실제로 개를 쳤을 확률을 제시하고 B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실험 결과, 모의 배심원이 B에 책임이 있을 확률로 제시한 값인 '주관적 확률'은 두 집단이 같았고, 각 집단에서 B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모의 배심원의 비율인 '원고 승소 판결률'은 두 집단 모두에서 주관적 확률보다 낮았다.

<보 기>

- ㄱ. 집단1의 원고 승소 판결률이 집단2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 ㄴ. 주관적 확률과 원고 승소 판결률 사이의 차이가 집단2보다 집단1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면, <가설>은 강화된다.
- ㄷ. 만약 회색 버스가 갑의 개를 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두 집단에게 추가로 제공되었을 때, 집단1보다 집단2에서 원고 승소 판결률이 유의미하게 더 낮아졌다면, <가설>은 약화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3. 논증 평가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증거’
→ 실험과의 포섭이 중요
- ❖ 실험 강화 약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 어려워지는 것은 ‘표현’
- ❖ 약화? ‘반드시 부정되어야, 즉 양립불가능 해야 함.’
-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약화는 양립불가다.’

2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론〉

사람들은 익숙한 순서대로 정보가 주어질 때 정보 처리가 수월하다고 느낀다. 정보 처리가 수월하다는 느낌은 대상에 대한 친숙함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대상의 호감도가 높아진다. 주재료와 최종 제품은 정보 자체에 시간적 흐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주재료를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에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최종 제품을 제시하면, 역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누구에게나 같은 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제품에 대한 친숙도가 낮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높을수록 작아질 것이다.

〈실험〉

무작위로 선정된 남녀 각 60명을 대상으로 먼저 올리브 비누에 대한 친숙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대체로 남성은 친숙도가 낮았고 여성은 친숙도가 높았다. 남녀를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는 올리브 비누의 재료인 올리브 오일이 올리브 비누보다 먼저 나오는 광고를, 다른 집단에는 올리브 비누가 올리브 오일보다 먼저 나오는 광고를 보여 주었다. 이후 네 집단 각각에 대해 올리브 비누에 대한 정보 처리의 수월성 정도와 제품 호감도를 측정하였다.

〈보 기〉

- ㄱ. '올리브 비누-올리브 오일' 순으로 정보가 제시될 때보다 역순으로 제시될 때, 남성은 올리브 비누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 ㄴ. '올리브 비누-올리브 오일' 순으로 정보가 제시될 때보다 역순으로 제시될 때, 여성은 정보 처리가 더 수월하다고 느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론>은 강화된다.
- ㄷ. 모든 집단에서 올리브 비누에 대한 친숙도가 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품 호감도를 비교했을 때, 남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면 이 결과는 <이론>과 양립 가능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3. 논증 평가 유형

[기초 논리]

❖ 양립 가능? 양립 불가?

양립 불가만 아니면 모두 가능

❖ 모순, 반대, 소반대

모순 = 부정 = 배타적 선언

모순과 반대는 양립 불가

양립불가라고만 해서는 모순인지 반대인지 알 수 없음

❖ 양립불가는 조건문의 다른 표현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이 나온 경우 밀줄을 따라 풀이하자.’

❖ 논증 평가 유형의 핵심 SKILL 1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밀줄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 예시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읽자.’

Part 3-2. 실험

❖ 실험 핵심 SKILL 1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실험 결과를 먼저 읽고, 그 후 필요시 실험 배경을 읽어라.
실험 배경에는 실험을 해석할 원리 등이 담겨있다. 추론적 사고를 하라.’

3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는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다.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는 특정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과 결합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단백질 T는 특정 DNA에 결합하여 단백질 R의 합성을 활성화하며, BD와 AD라는 두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BD는 DNA에 결합하고, AD는 R의 합성을 활성화한다. BD와 AD가 각각 별개의 단백질로 합성되면, BD와 AD는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때 BD는 AD와 연결되지 않아도 DNA에 결합하지만, AD는 BD와 연결되지 않으면 R의 합성을 활성화할 수 없다. 하지만 BD와 AD가 다른 단백질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되면 R의 합성이 활성화된다.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단백질 사이의 결합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실험>

T를 합성하지 못하며 모든 유전자가 동일한 두 세포, 세포1과 세포2를 준비한다. 세포1에는 AD에 단백질 Y가 연결된 단백질(AD-Y)과 BD에 단백질 X가 연결된 단백질(BD-X)이 합성되도록 하고, 세포2에는 AD에 단백질 Z가 연결된 단백질(AD-Z)과 BD-X가 합성되도록 한다. 시약을 처리하여, R가 합성된 세포만 파란색으로 바뀌도록 한다. 세포1은 색의 변화가 없었고 세포2는 파란색으로 변했다.

<보 기>

- ㄱ. 세포1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는 R의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한 유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 ㄴ. 세포2에서 영역 BD와 영역 AD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 ㄷ. <실험>은 X와 Y가 결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Part 4. 논증 분석 유형

	법학	인문 철학	가설 실험	경제 사회	퀴즈	과학
논증 분석	1	8				

- ❖ 논증 분석 유형은 LEET 전체 문항 중 1/4 정도를 차지
- ❖ 인문철학 소재 문항의 대부분. 구별되는 견해(혹은 논증)가 주로 제시
- ❖ 숨겨진 원리를 찾아 문제를 풀게 하거나
 지문 내용이 참일 때, 참 혹은 거짓이 되는 진술을 고르게 하거나 (동의, 동의하지 않음)
 지문 내용과 양립가능한지 묻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숨은 전제(가정)이 무엇인지 묻거나
 가능성과 존재를 묻는 등의 문제로 구성 → 논리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을 경우 유리
 (기본강의)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1 - 문제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글을 전부 읽고 푸는 것이 아니다. 추론적 사고를 하라.’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2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원리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을 뿐이다.
 선지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원리를 생각하고 지문에서 해당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라.’
 → 결국 문맥을 통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즉 조건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

5.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은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로 성립된다. 계약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계약법은 당사자의 자율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최대한 관철시키고 강화하는 규범체계라야 한다. 당사자의 자율은 어느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 A: 자율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보다는 자율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보호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는 '원래' 존중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의도했던 의사가 다르게 표시되어 상대방이 그 표시대로 믿었더라도 표시보다는 당사자 일방이 의도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의 후견적 관여는 자율의 행사가 오히려 자율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당화된다.
- B: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율이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자율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절댓값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효용(+)-의 절댓값보다 작으면, 자율에 대한 제한은 정당화된다. 자율을 제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 3자(국가나 사회 포함)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율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C: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는 자율이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는 효용을 평가할 때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자율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절댓값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효용(+)-의 절댓값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가 등이 보상해주어야 자율을 제한할 수 있다. 보상된 만큼 당사자의 효용은 증가된 것으로 본다.

- ① A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의도했던 의사가 ㉠임에도 실수로 ㉡로 표시하여 상대방이 ㉢로 인식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를 ㉡로 본다.
- ② B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율을 정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은 항상 양(+)-이다.
- ③ C에 따르면,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이 음(-)-인 경우가 발생한다.
- ④ A와 C 중 어느 것에 따르든,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당사자의 비용(-)과 효용(+)-의 합이 양(+)-이 되더라도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 ⑤ X국 규제기본법이 "사회 전체에 창출되는 효용의 총합이 자율을 제한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자율을 제한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B보다는 C에 따라 입법된 것이다.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자율 그 자체의 가치보다 자율이 당사자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에 주목하여 자율을 보호해야 한다.’ & 효용이 + → 제한이 정당화
정당화된 제한 → 항상 효용이 +
‘당사자가 아닌 사회 전체에 초점을 맞춘다.’
- ❖ ‘A해야 B할 수 있다.’ / ‘A인 경우에만 B한다.’
B → A
- ❖ ‘~인 경우가 존재한다.’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3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연역 논증의 구조를 이해하라. 결국 모두 정보도출(원리적용)의 파생일 뿐이다.’
 - ‘귀류를 항상 풀이에 적용하라.’

13. <견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살인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며 살인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 아래 두 상황을 살펴보자.

(상황 1) 은행강도를 계획한 마피아 조직의 책임자 갑이 조직원 을에게 은행 보안담당자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보안담당자를 저격하여 살해하였다.

(상황 2) 적과 치열한 교전 중 지휘관 병이 부하 정에게 적의 저격수를 사살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은 병의 지시에 따라 적의 저격수를 사살하였다.

위 두 상황에서 을과 정 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견해가 있다.

<견해>

A: (상황 1)과 (상황 2)는 살인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상황 1)과 (상황 2)에서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가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 P를 "자기방어가 아닌 어떠한 살인도, 살인 명령도, 살인 명령의 수행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자. (상황 1)의 을과 (상황 2)의 정 의 살인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평가할 때 P를 똑같이 적용 할 수 있어야 한다.

B: 전쟁에서의 폭력과 일상생활에서의 폭력은 분명히 다르므로, 일상생활에서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와는 다른 특수한 도덕적 원리가 전쟁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상황 1)의 을과 (상황 2)의 정 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전쟁에서의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원리가 아닌 다른 도덕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 기>

- ㄱ. P에 의해 을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정에게 도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A는 약화된다.
- ㄴ. A에 따라 (상황 2)에서 P에 의해 정에게 살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 의 행위가 자기방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 ㄷ. B에 따르면 을과 정 모두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는 도출될 수 없다.’

A의 부정값이 도출되었어야 함.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4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A에 동의한다는 A가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A가 반드시 거짓인 것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를 부정한다는 A가 반드시 거짓인 것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A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A와 양립 가능하면 된다.’

15. <견해>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B, C 세계가 있다고 하자.

A: 1억 명이 산다. 이들 모두는 각자 100단위의 높은 복지를 누린다.

B: 100억 명이 낮은 수준이지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각자 5단위의 복지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A에 살고 있던 1억 명이 이주해 왔다. A에서 이주한 1억 명은 각자 105단위의 복지를 누린다. B에 본래 살고 있던 100억 명은 각자 5단위의 복지를 그대로 누린다.

C: 아무도 살지 않던 C로 B에 살고 있던 101억 명이 모두 이주하였다. C에 사는 101억 명 모두 각자 10단위의 복지를 누린다.

<견해>

갑: A에 살다가 B로 이주한 사람들은 A에 살았을 때보다 복지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B에 사는 나머지 사람들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각자 5단위의 복지 수준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따라서 B가 A보다 좋다.

을: C에는 완전한 평등이 있고, C가 B보다 복지 평균도 높다. 따라서 C가 B보다 좋다.

병: 복지 총합은 C가 A보다 크지만, 복지 평균은 A가 C보다 높다. 따라서 A가 C보다 좋다.

<보 기>

ㄱ. 불평등이 더 적은 세계가 더 좋은 세계라면, 갑의 결론은 부정 되고 을의 결론은 부정되지 않는다.

ㄴ. 을이 C가 B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적용한다면, 을은 병의 결론에는 동의하고 갑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ㄷ. 복지 평균이 더 높은 세계가 더 좋은 세계라면 갑의 결론은 부정되며, 복지 총합이 더 큰 세계가 더 좋은 세계라면 을의 결론은 부정되지 않고 병의 결론은 부정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A&B이다. 따라서 C이다.’

A&B → C가 숨은전제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5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인과론은 필요 최소한으로 알아두고 문제 풀이에만 적용하자.’

18.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1: 종이에 쓰인 '개'라는 기호는 개에 관한 것이야.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의 개-생각 또한 개에 관한 것이지. 그런데 '개'라는 임의의 기호가 왜 개에 관한 것인지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생각이 어떻게 개에 관한 것인지를 설명하기도 까다로운 것 같아.

을1: 그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 만약 대상 X가 어떤 생각을 인과적으로 야기하고, 그리고 X가 있을 때만 그 생각이 인과적으로 야기된다면, 그 생각은 X에 관한 것이지. 승강기 지시 등을 생각해봐. 7층 지시등은 승강기가 7층에 도달하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켜지잖아. 7층 지시등이 7층에 관한 것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개-생각은 개에 관한 것이야.

갑2: 너의 견해는 만족스럽지 않아. 예를 들어 병이 개를 본다 고 해봐. 개에서 병의 개-생각까지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는 매우 길어. 빛이 개의 털에 반사되어 병의 망막으로 들어오지. 망막은 특정한 양식으로 활성화되고 그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돼. 마지막으로 개-생각이 병의 뇌 깊은 데서 형성되지. ㉠병의 망막 위의 활성화 양식을 'd-양식'이라 하자. 그렇다면 개가 아닌 d-양식이라는 대상에 의해, 그리고 오직 그 대상이 있을 때만 병의 개-생각이 인과적으로 야기된다고 말할 수 있지.

을2: 하지만 그 d-양식을 인과적으로 야기한 대상의 인과관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항상 개가 있지. 그러므로 병의 개-생각은 여전히 개에 관한 것임에 변함이 없어.

갑3: 그러면 병이 안개 낀 저녁에 양을 개로 오인하고 '저 안개 너머에 개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볼까? 지금 병의 개-생각은 양에 의해서 야기되었어. 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양이 아닌 개가 병의 개-생각을 야기하겠지. 개-생각은 양에 의해 야기되기도 하고 개에 의해 야기되기도 해. 그렇다면 개-생각은 개 또는 양에 의해 야기된다고 해야 해. 그러므로 너의 견해가 옳다면 병의 개-생각은 개가 아닌 개-또는-양이라는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 보 기 >

- ㄱ. ㉠까지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의 출발점이 개 전체가 아니라 개의 일부라고 가정하더라도 갑2의 결론은 똑같이 도출된다.
- ㄴ. 을2는 대상 a, b, c에 대해서 만약 a가 b를 인과적으로 야기 하고 b가 c를 인과적으로 야기한다면 a는 c를 인과적으로 야기한다는 원리를 전제한다.
- ㄷ. 갑2와 갑3에 제시된 논증은, 만약 을1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병의 개-생각이 개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A가 아니라 B라고 가정하더라도’
바뀐 가정인 B를 대입해서 확인하자
- ❖ ‘A라 전제한다.’
A를 부정했을 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
- ❖ A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옴
: 모순을 통한 정보도출 / 구조꼴을 이해하고 대입해서 확인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6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인과론은 필요 최소한으로 알아두고 문제 풀이에만 적용하자.’

19.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모든 명제는 수학, 윤리 등 어느 하나의 논의 주제에만 관한 것이며 어떤 논의 주제에 관한 것도 아닌 명제는 없다. 또한 명제는 그 명제의 논의 주제에 상대적으로만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래서 "명제 p는 참이다.", "명제 q는 거짓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명제 p는 수학적-참이다." "명제 q는 윤리적-거짓이다." 등과 같이 말해야 옳다. 명제는 그 명제의 논의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참이 아니다. 즉 윤리에 관한 명제 p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이가 원리'에 의하면 모든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해, 어떤 명제가 참이 아니라면 그 명제는 거짓이고, 그 명제가 거짓이 아니라면 그 명제는 참이다. 나의 견해는 얼핏 이가 원리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명제가 수학적-참이면서 윤리적-참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명제가 수학적-참이면서 수학적-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지, 수학적-참이면서 윤리적-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을: 그렇지 않다. 너의 견해와 이가 원리를 모두 받아들이면 모순이 발생한다. "살인은 나쁘다."라는 명제를 r이라고 하자. r는 윤리에 관한 명제이므로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너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참 거짓은 논의 주제에 상대적이므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 또한 어떤 특정한 논의 주제에 상대적으로 참이다. 살인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참 거짓 문제가 수학적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에,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가 윤리의 논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는 윤리적-참이다. 그런데 너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명제는 하나의 논의 주제에만 속하므로, 윤리적-참인 명제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러므로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는 수학적-참이 아니다. 그런데 이가 원리에 따르면 모든 명제 p에 대해서, p가 참이 아니라는 것이 참이 아니라면, p는 참이다. 그러므로 r는 수학적-참이다. 이는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우리의 가정과 충돌한다.

< 보 기 >

- ㄱ. 논의 주제 s에 관한 명제 p에 대해서, p가 s-참이 아니라면 p가 s-거짓이라는 것을 갑은 부정하지 않는다.
- ㄴ. "p는 참이 아니라는 것은 참이 아니다."에서 앞의 '참'과 뒤의 '참'이 같은 논의 주제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 ㄷ. r가 수학적-참이 아니라는 명제가 윤리의 논의 주제가 아닌 예술의 논의 주제에 관한 것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을의 결론은 똑같이 도출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A라면 B라는 것을 갑은 부정하지 않는다.’
갑의 주장은 $A \rightarrow B$ 와 양립가능하다. 즉 갑의 주장에 ‘ $A \& \sim B$ ’가 있다라는 내용이 없다.
- ❖ ‘~일 수 없다.가 약화한다.’
~일 수 있다.
- ❖ ‘A가 아니라 B라고 가정하더라도’ (2)
바뀐 가정인 B를 대입해서 확인

20.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간은 지각을 바탕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해. 그런데 인간은 때로 대상을 잘못 보기도 하지. 외부 세계에 정확히 대응하도록 지각하는 능력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해. 실제 행동에서 차이가 날 테니까. 그래서 정확한 표상과 오표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을: 우리는 주어진 지각만으로는 정확한 표상과 오표상을 가려낼 수 없어. 시지각은 오직 망막에 전달된 정보에 의해 결정돼. 이때 동일한 지각에 대응하는 외부 대상은 복수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중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어. 갈색이 섞인 노란 표면도 주위가 붉을 때 중립적인 노란색으로 지각되고, 연두색이 섞인 노란 표면도 주위가 녹색일 때 중립적인 노란색으로 지각돼. 이 경우 우리는 중립적인 노란색만을 지각할 뿐, 표면이 원래 무슨 색인지 알 방법은 없지.

갑: 네 말은 결국 설익은 바나나와 잘 익은 바나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면, 잘 익은 바나나를 골라 먹을 수 없잖아. 이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을: 물론 잘 익은 것만 알아내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런데 우리는 설익었는지 잘 익었는지를 매번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우리 행동반경 안에는 노란 바나나가 더 많아. 마트 진열대는 노란 바나나로 가득하잖아. 노란색 지각에 따라 먹는다면, 잘 익은 바나나를 먹게 될 거야.

<보 기>

ㄱ. 같은 지각을 산출하는 복수의 대상 중 어떤 것이 그 지각에 정확하게 대응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지각자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의 주장은 약화되지 않는다.

ㄴ. 서로 다른 크기의 두 동그라미가 각각을 둘러싼 다른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로 지각될 수 있다면, 을의 주장은 약화된다.

ㄷ. "어떤 지각은 외부 대상에 정확하게 대응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갑은 동의하지 않지만 을은 동의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 알 수 있다.가 약화한다.’
알 수 없다.
- ❖ 패러프레이징과 함축. : 정확하게 보인다.
- ❖ 특칭의 부정 = 전칭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7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보기의 전제와 결론을 모두 확인하자.’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8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모순은 부정문을 의미한다.’

21.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예술비평은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언어적 활동이다. 비평가는 작품의 구조적 특징이나 재현적·표현적 성질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예술적 가치평가의 근거가 되는 이유들을 제시한다. 다음 <비평>을 놓고 갑과 을이 견해를 개진한다.

<비평>

- 평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훌륭하다.
- 이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실물같다.

갑: <비평>의 평가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누군가는 "만약 예술작품 W가 실물 같다면, W는 훌륭하다."라는 기준이 <비평>에 적용 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워홀의 <브릴로 상자>에는 적용될 수 없다. <브릴로 상자>가 실제 세제 상자와 동일한 외관을 지녔지만, 그 때문에 훌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 W에 대해서 속성 F가 W에 귀속된다면, W는 훌륭하다."라는 비평의 기준은 확립될 수 없다.

을: 모든 예술작품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예술작품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범주에서 그것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작품의 훌륭함을 보장하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 즉 "범주 C에 속하는 예술작품 W에 대해서 속성 F가 C의 목적에 기여한다면, F는 W를 훌륭하게 만든다."를 찾아낼 수 있다. <비평>의 평가는 "르네상스 조각에 속하는 예술작품 W에 대해, '실물 같음'이라는 속성이 르네상스 조각의 목적에 기여하는 한, '실물 같음'은 W를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 기>

- ㄱ. 갑에 따르면, 비평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화될 수 없으므로 평가는 언제나 개별 작품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ㄴ. 희화 작품을 평가할 때, "통일성 있는 예술작품은 모두 훌륭하므로 이 작품은 훌륭하다."라는 평가는 을이 주장하는 '일반화된 비평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 ㄷ. "극의 훌륭함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속성인 '개연성 없는 플롯'이 부조리극의 목적에는 기여하더라도, 부조리극 비평의 일반화된 기준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갑의 견해와는 모순되지 않지만, 을의 견해와는 모순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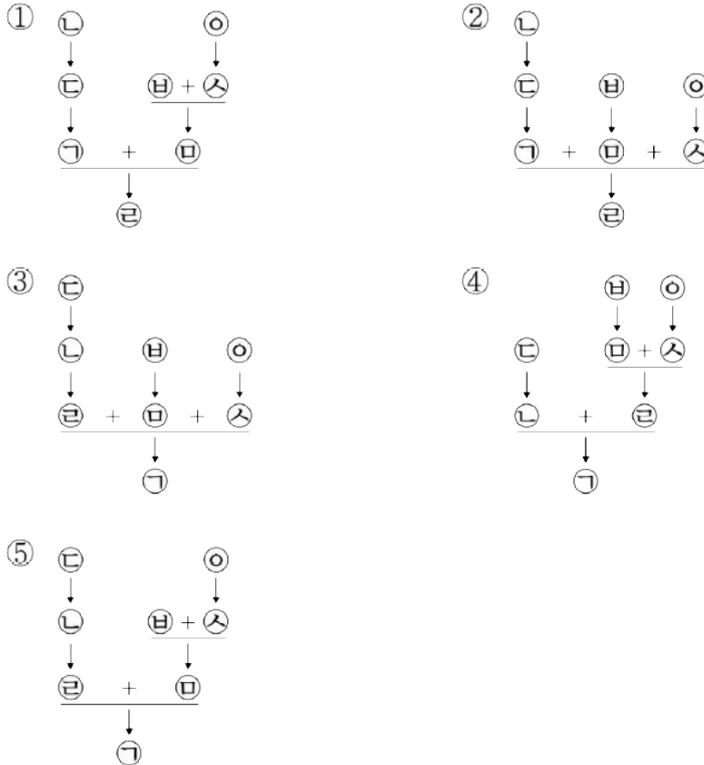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A에 대해 B하는 한 C하다.
부정 : A&B&~C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9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논증구조 분석의 핵심은 술어간 비교다.’

25. 다음 논증의 구조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윤리 규범이나 가치의 필연성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규범이나 가치는 사회적, 역사적 우연성을 반영한다. ㉢우리가 지금과 다른 사회·문화적 조건에 처해 있었다라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실천적 문제에 직면했을 것이고 다른 규범 및 가치 체계를 지녔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윤리 규범도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사실에서만 비롯할 수 없으며, 모든 가치는 우리의 평가적 관점에 의존한다. ㉤윤리 규범은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는 '이성의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이성의 법칙으로부터 순수 논리학과 수학의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으로 여기는 도덕 법칙을 마찬가지로 연역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치의 원천은 특정 행위자의 평가적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논증 분석 유형의 핵심 SKILL 10 - 풀이에 대한 접근을 바꿔라.
 - ‘A를 가정한다의 경우 A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라.’
 - ‘비교급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29.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경제 행동은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야. 완벽한 경쟁과 자기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시장의 토대는 바로 이러한 원자화되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행동이지. 사람들의 사회 관계는 경쟁 시장에 방해가 될 뿐이야.

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아. 시장에서 강압과 기만이 일어나기도 하니깐. 물론 강압과 기만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들의 강압과 기만을 억누를 정도로 시장이 충분히 자기규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최소한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작동해야 해.

병: 그러한 신뢰의 원천은 일반화된 도덕이야.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합의에 자동적으로 따르지. 인간은 우리가 합의하는 규범과 가치 체계의 명령에 자연스럽게 복종하거든. 이를 사회화를 통해 철저하게 내면화하기 때문이지. 도덕을 강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질서 있는 거래가 보장되는 거야.

을: 하지만 일반화된 도덕이 작동해서 신뢰에 입각한 경제 행동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상황은 현실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어. 시장의 질서 있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관계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 시장에서 신뢰를 놓고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적 관계와 그 연결망이야. 우리는 평판이 좋은 사람과 거래하려고 하지, 일반화된 도덕에만 의존하지는 않아. 그리고 일반적 평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거래 상대를 잘 아는 지인을 찾아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물론 자신도 좋은 평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야. 원자화된 개인을 가정해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어.

< 보 기 >

- ㄱ. 갑과 을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가정한다.
- ㄴ. 경제 관계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의 사회적 성격이 경제생활에 긍정적이라는 주장에 갑은 동의하지 않지만 을은 동의한다.
- ㄷ.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개인이 맺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관계는 병보다 을에게 중요하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Part 4. 논증 분석 유형

[표현과 문맥적 장치에 대한 이해]

- ❖ 강압과 기만도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 ❖ 질서있는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관계를 주목해야 해.